

2022년 3/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2. 6

##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 6. 13 ~ 24(휴일제외 10일 간)
- 분석대상 : 116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32	84	25	91	
비중	27.6	72.4	21.6	78.4	
업종별(완성품 기준)					
	전자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매수	21	24	30	21	20
비중	18.1	20.7	25.9	18.1	17.2

※ 업체별 업종 복수응답 가능

###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II

## 요약

### ● 2022년 3분기 전망BSI '84.5', 2분기 실적BSI '78.4'

- 창원 제조업 전망BSI, 6개 분기 만에 기준치 하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출액과 생산량 회복으로 5개 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했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 금리인상,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사태 등 조달여건과 채산성 악화 요인이 지속되면서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 체감 경기를 끌어내렸음.
- 전망BSI, 매출액(97.4), 공장가동(91.4), 설비투자(89.7), 영업이익(88.8), 공급망안정성(82.8), 자금조달여건(78.4) 등 전부문에서 기준치 하회
- 업종별 전망BSI, 자동차부품(91.7), 기계(90.0), 철강·금속(66.7), 전기·전자(71.4) 등 기타제품제조업(100.0)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기준치 하회
- 업종별 실적BSI, 자동차부품(100.0), 기계(100.0) 포함 기록, 중국과 산업 연관성 높은 철강·금속(61.9), 전기·전자(33.3)는 중국 봉쇄에 따른 조달여건 악화 영향으로 기준치 크게 하회

### ● 응답업체 60.3%, '올해 경영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것'

- 37.1%, '목표치 달성 또는 근접할 것', 2.6% '목표치 초과 달성 할 것'
-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 이유  
'글로벌 수요 증가 및 대외여건 개선' 41.1%, '내수시장 회복'(37.5%) 순
- 목표치 달성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  
'내수시장 침체' 30.6%, '환율·물가 변동성' 27.8% 순  
→ 업종에 따라 내수시장에 대한 전망을 회복(자동차부품 등)과 침체(기계·전기전자 등)로 다르게 인식

### ● 민선8기 출범으로 경기 활성화, '기대한다' 48.2%, '기대하지 않는다' 51.8%

- 기대하는 이유  
'새정부의 규제개선 정책' 41.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 기대' 16.3% 순
- 기대하지 않는 이유  
'원자재가 상승' 39.5%,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 19.4%,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 17.7% 순
- 지자체 우선 추진과제로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해소'(33.2%)  
다음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28.6%, '외자기업 투자 유치' 20.4% 순
-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37.7%)  
다음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25.9%, '선심성 예산집행' 17.4% 순

### Ⅲ

## 2022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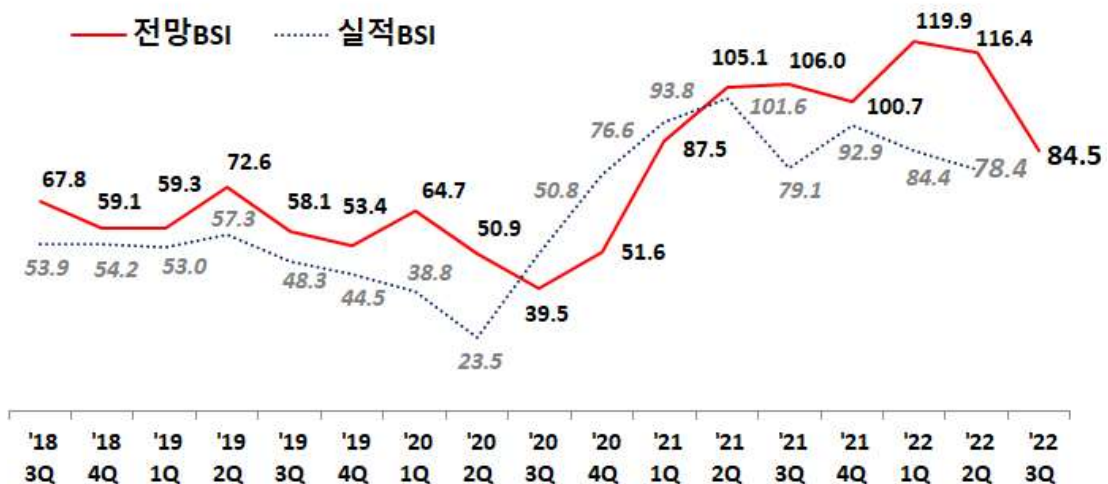
###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2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84.5'(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었음. 코로나19로 정체되어 있던 해외 비즈니스의 재개로 매출액과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5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던 전망BSI가 6개 분기 만에 지수 하락을 나타냈음.

매출액과 생산량의 회복에도 영업이익과 공급망 안정성, 자금조달 여건 등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됨.

○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도 기준치를 밑돈 '78.4'로 조사되었음.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금리인상, 물류비 상승, 우크라이나사태 등 채산성 악화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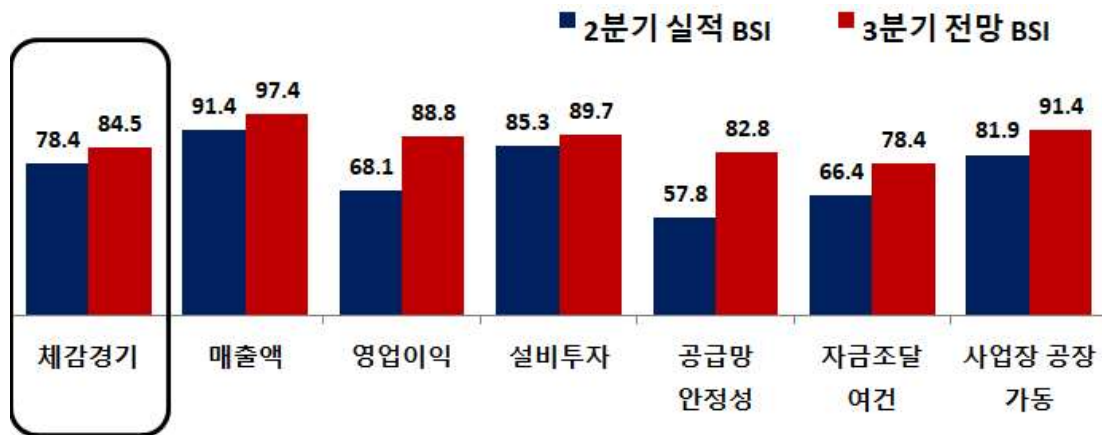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2년 3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97.4), 공장가동(91.4), 설비투자(89.7), 영업이익(88.8), 공급망안정성(82.8), 자금조달여건(7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매출액 부문의 전망BSI가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나머지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업이익과 공급망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부문의 지수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2분기 항목별 실적BSI의 경우 매출액(91.4), 설비투자(85.3), 공장가동(81.9), 영업이익(68.1), 자금조달여건(66.4), 공급망안정성(57.8)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음.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우려되었던 수익성 악화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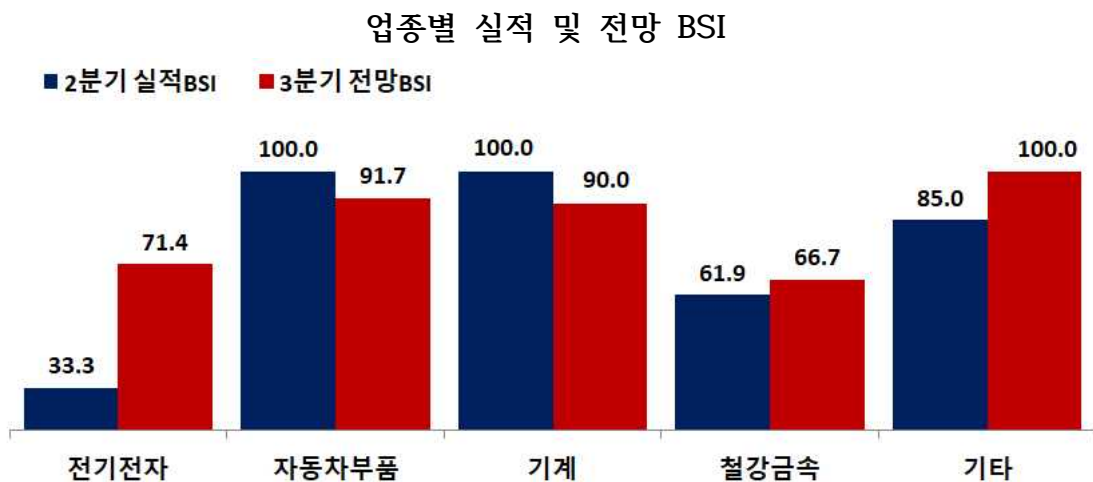
###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2년 3분기 업종별 전망BSI는 자동차부품(91.7), 기계(90.0), 철강·금속(66.7), 전기·전자(71.4) 등 기타제품제조업(100.0)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3분기 경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철강·금속임.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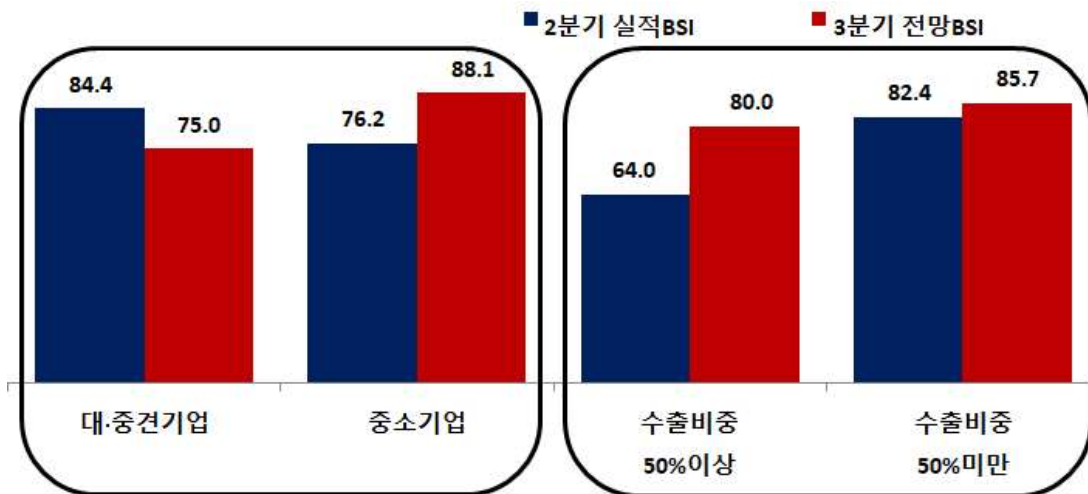
○ 2분기 업종별 실적BSI는 자동차부품(100.0), 기계(100.0) 제조업은 보합을 나타냈고, 기타(85.0), 철강·금속(61.9), 전기·전자(33.3) 등은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음.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BSI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연관성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의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이 2분기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75.0)과 중소기업(88.1), 수출위주기업(82.4), 내수위주기업(85.7) 등 모든 기업군에서 2022년 3분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음.
- 규모별·매출형태별 2분기 실적BSI도 대·중견기업군(84.4)과 중소기업(76.2), 수출위주기업(64.0), 내수위주기업(82.4) 등 모든 기업군에서 2022년 2분기를 실적 부정적으로 내다봤음.

###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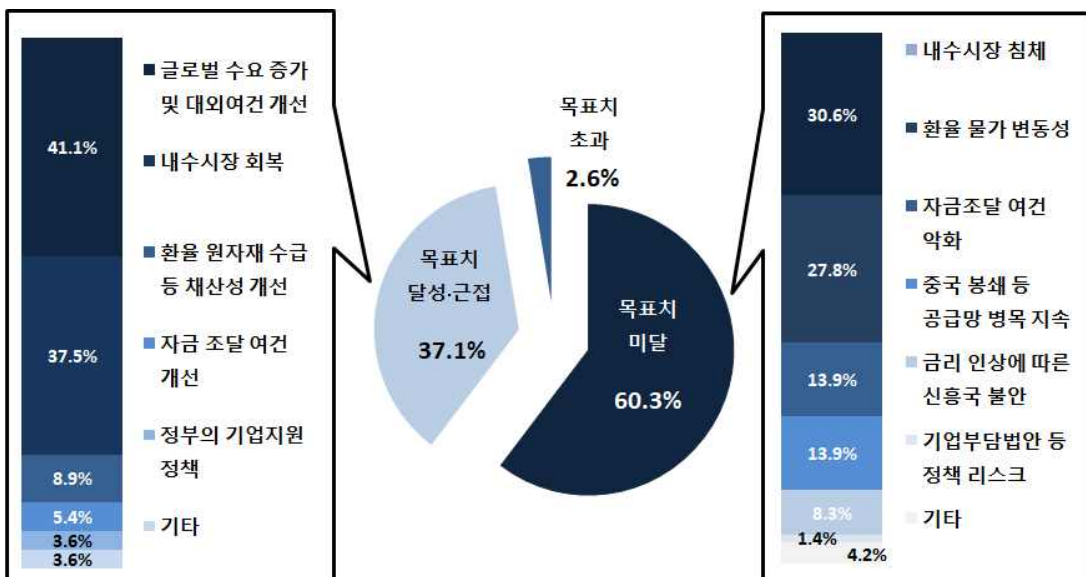




#### 4. 2022년 경영 목표치 달성 전망

- 연초 계획한 실적(영업이익) 목표치의 달성여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0.3%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 답했고,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근접할 것’이란 응답은 37.1%,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란 응답은 2.6%에 머물렀음.
-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답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글로벌 수요 증가 및 대외 여건 개선’이 41.1%로 가장 많았고, ‘내수시장 회복’(37.5%), ‘환율상승, 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개선’(8.9%), ‘자금조달 여건 개선’(5.4%),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기대’(3.6%) 순으로 답했음.
- 반대로 목표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리스크로는 ‘내수시장 침체’를 30.6%로 가장 많이 꼽았고, ‘환율·물가 변동성’(27.8%), ‘자금조달 여건 악화’(13.9%),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13.9%),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8.3%),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1.4%) 순으로 답했음.

경영 목표치 달성 전망(n=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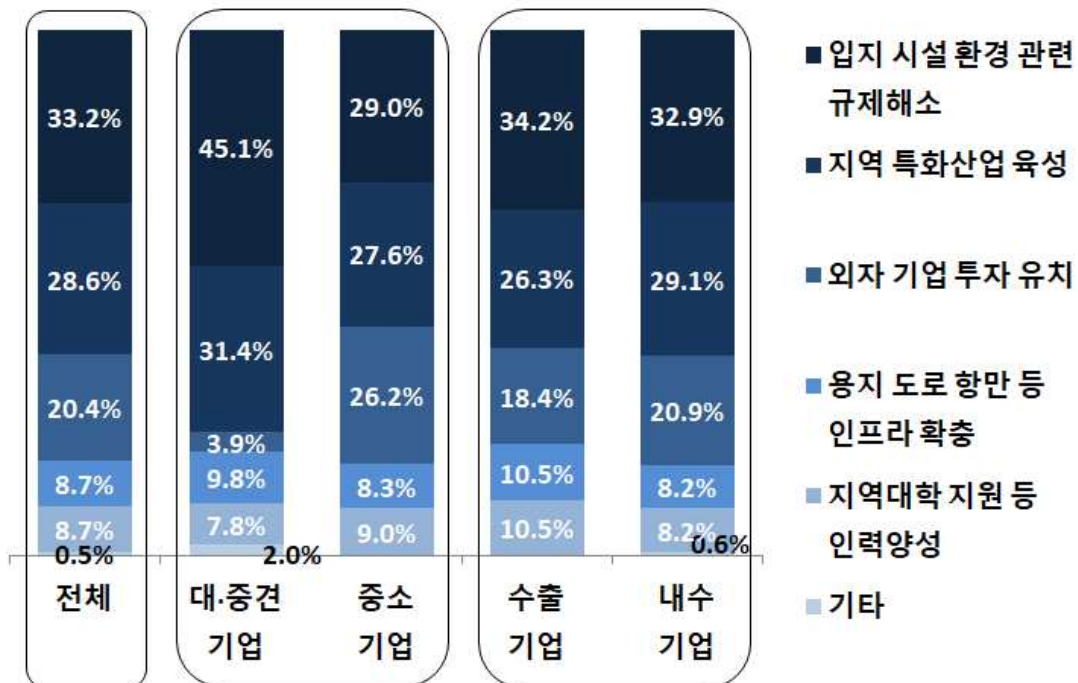
## 5.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추진과제 및 경계사항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추진과제로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해소’를 33.2%가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28.6%), ‘외자기업 투자유치’(20.4%),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8.7%) 순으로 응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각각 45.1%, 3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한편 중소기업은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29.0%), ‘지역 특화산업 육성’(27.6%)과 더불어 ‘외자기업 투자 유치’(26.2%)를 높은 비중으로 꼽았음.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추진과제(n=116)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37.7%),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25.9%), ‘선심성 예산집행’(17.4%),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14.2%),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갈등’(4.9%) 순으로 꼽았음.

지방자치단체가 경계해야 할 사항(n=116)

